

국제캠 학관 학생 식당 오는 4일부터 영업 시작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생협이 운영하는 학관 학생 식당이 4일부터 정식 오픈하는 가운데, 지난 2월 17일부터 교직원 식당이 2주간 임시로 영업했다.

학생 식당은 ‘든든하게’, ‘푸짐하게’의 두 가지의 코너로 운영을 시작한 후, 운영이 안정화될 경우 ‘우아하게’ 코너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든든하게는 특식의 개념으로 떡볶이, 육회 비빔밥, 백반과 같은 한식 위주의 메뉴를 제공한다. 푸짐하게는 닭도리탕 등과 같이 고기 메뉴를 제공하며 우아하게는 돈까스, 스파게티와 같은 양식으로 구성한다.

세 코너 메뉴의 가격대는 모두 55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책정될 예정이다. 김민화 생협 사무국장은 “우리의 가격 정책은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의 50%를 식재료비로 사용하는 것이다”며 “대개 일반 식당은 재료비에 40%이상을 쓰지 않지만, 양질의 식사 제공을 위해서는 재료비로 50%는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료비에 변동이 잦기 때문에 식사를 고정가로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존부터 운영되어 온 ‘팝업 델리’ 코너 역시 계속해서 운영한다. 김 사무국장은 “원래는 팝업델리에 김밥, 샌드위치를 수제로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했지만, 아직 그럴 만큼 인력이 충분치 않다”며 “인력이 충원되면 오픈일부터 그렇게 운영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워홈이나 풀무원 등의 기성 제품을 구비 해놓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학관 학생 식당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12월에 종료된 후 약 두 달간 내부 정비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었다. 내부 정비 기간 동안에는 전

반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됐다. 조리 공간의 깨진 바닥 타일을 교체하고, 고장 난 조리 기계 역시 수리 혹은 교체했다.

김 사무국장은 “식당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과 조리 공간 타일 교체에 학교 측 지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처 예산팀에 따르면 방중 식당 공사에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됐다. 예산팀은 “학생 복지 측면에서 예산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임시 운영 기간 동안 식당을 찾은 이용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동(전자공학 2020) 씨는 “오늘 부족한 재료가 있었는지 대체 메뉴로 생선가스를 주셨는데, 전보다 대치를 잘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관련 논란이 있기도 했으니 위생을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학관 식당에 바라는 바를 전했다.

교직원 식당의 메뉴 가격은 임시 영업 동안 6500원으로 책정되었지만, 4일부터는 70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학내 구성원은 ‘잇츠미’ 앱을 사용할 경우 6500원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김 사무국장은 “교직원 식당에 제공되는 메뉴는 원래 7천 원이 적정 가격인데, 학내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고자 그동안 500원 할인된 가격에 제공했었다”며 “개강 이후부터는 학내 구성원과 외부인을 구분해 외부인에게 동일 혜택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인상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주방에서 조리 시 복장이라든지 음식 조리 관련해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오픈 전 일주일간 주방 대청소를 하다 보니 그전에는 청소를 잘 안 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매일 주방 물청소를 하려 한다”고 위생을 철저히 할 것임을 강조했다.



생협 학관 학생 식당이 오는 4일부터 정식 오픈한다.

(사진=권도연 기자)

청운관 지하 오픈스튜디오 학생 라운지 조성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청운관 지하 1층에 오픈 스튜디오와 학생 라운지 ‘KHU Creative Commons’가 만들어진 다. 기존 셀프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하고, 라이브 스튜디오, 학생 라운지 및 학습 공간을 신설한다. 라이브 스튜디오에는 카메라, 대형 모니터 등이 있어 교수의 온라인 강의 녹화 혹은 실시간 강의 진행이 가능한 공간이다.

라이브 스튜디오 공간 조성은 교수학습개발원이 주도했다. 교수학습개발원 유승현 과장은 “온라인 강의와 대면 강의를 병행하는 교수님의 편의를 위해 계획했다”고 말했다. 라이브 스튜디오의 경



청운관 지하에 라이브 스튜디오와 학생 라운지가 조성된다. (사진=총무관리처 제공)

우 예약제로 운영된다.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와 학습 공간에 대해 유 과장은 “공강 시간에 학생이 그룹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기획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통학생 한지민(무역학 2024) 씨는 “지난 학기에는 청운관에서 교양 수업이 끝나고 쉴 곳

이 마땅치 않았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남은 공부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외부 공사는 끝났고, 내부 기자재 설치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유 과장은 “기자재 설치 이후 구동 테스트가 끝나면 3월 중에는 공간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 대학주보 제 74기 신입 기자 모집

03.14 까지

경희의 오늘을 보도하고,
경희의 역사를 내 손으로!



1차 합격 발표

03.17

면접

03.19-20

최종 합격 발표

03.21

* 모집부문

취재기자
사진기자 (사진에 관심 있는 자)
미디어팀 (관련 톨 활용 가능 여부)

* 지원자격

3학기 이상 활동이 가능한 학부생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자

* 활동혜택

기자 명함 제공
활동 증명서 발급
기사 작성 시 원고료 지급
해외 취재 및 유명인 인터뷰 기회

* 지원방법

경희대학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내 지원서 작성

* 문의사항

카카오톡 | 대학주보
메일 | khunews@khu.ac.kr
인스타그램 | @khunews_jubo
하시연 편집장 010-4415-0622

* 바로가기

